

보도 일시	2022. 3. 24.(목) 15:30	배포 일시	2022. 3. 24.(목) 15:30
담당 부서 <총괄>	부산지방기상청 예 보 과	책임자	과 장 장재동 (051-718-0320)
		담당자	주무관 김병국 (051-718-0333)

부울경 내일 오후~모레 오전 많은 비, 강풍, 풍랑 - 시간당 20~30mm↑ 강한 비, 순간풍속 20~25m/s 강풍, 5m 이상 파고 -

주요 내용

- 부산, 경남남해안, 지리산 부근 30~70mm(많은 곳 80mm 이상) 강하고 많은 비
- 울산, 경남내륙(지리산부근 제외): 20~50mm
- 부산, 울산, 경남남해안 중심 순간풍속 20~25m/s의 태풍급 강풍
- 남해동부먼바다, 동해남부남쪽먼바다 최대 5.0m 이상 높은 물결



[3월 26일 새벽 기압계 모식도]

- 부산지방기상청장(청장 김현경)은 내일(25일) 늦은 오후(15시)부터 모레(26일) 오전(06~12시)사이 부울경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며, 해상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며,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와 함께 상세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울경 지역에 내일(25일) 늦은 오후(15시)부터 모레(26일) 오전(12시)까지 서쪽에서 다가오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일본 동쪽해상에는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, 우리나라 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기압차가 커지고, 이로 인한 강한 남풍에 의해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[강수 전망]

-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(25일) 늦은 오후(15~18시)에 경남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(21~24시)에는 부울경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, 모레(26일) 오전(09~12시)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특히, 모레 새벽(00시)부터 아침(09시)사이 강한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부산, 경남남해안,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~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
- 모레(26일) 새벽(00~06시), 부산과 경남남해안은 만조 시간대와 겹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, 강한 바람에 의한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, 상습 침수구역과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및 방파제나 갯바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 (25일 늦은 오후(15시)부터 26일 오전(12시)까지 >

- 부산, 경남남해안, 지리산부근: 30~70mm (많은 곳 80mm 이상)
- 울산, 경남내륙(지리산부근 제외): 20~50mm

- (예보 변경 가능성) 이번 강수는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,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의 강도와 강수량, 바람의 세기 등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.

[강풍 전망]

- 모레(26일) 새벽(00시)부터 오후(18시) 사이 부산, 울산, 경남남해안에는 바람이 35~65km/h(10~18m/s), 순간풍속 70~90km/h(20~25m/s)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며, 그 밖의 경남내륙에도 순간 풍속 60km/h(17m/s)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다며,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대형크레인, 간판 등 실외 대형 설치물 파손과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비닐하우스, 축사 등 붕괴가 우려되니,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철저
- 시설물 파손과 간판,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니, 보행자와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

- 야외 작업자(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배달업 등)의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
- 산간도로와 터널 입·출구에서 돌풍이나 급변하는 바람 주의
- 강풍 및 높은 파고로 항공 및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, 항공·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

[풍랑 전망]

- 해상에서는 내일(25일) 오후(12시)부터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남해동부면바다는 내일(25일) 오후(12시)부터, 남해동부앞바다는 밤(18시)부터, 울산앞바다와 동해남부남쪽면바다는 모레(26일) 새벽(00시)부터 바람이 35~70km/h(10~20m/s)로 매우 강하게 불고, 물결이 2.0~4.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선박 침몰, 기름 유출, 정박 선박 추돌로 인한 2차 사고, 양식장 피해 등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특히, 남해동부면바다는 내일(25일) 밤(18시)부터, 동해남부남쪽면바다는 모레(26일) 아침(06시)부터 물결이 최대 5.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 것으로 예상하였고,
- 내일(25일) 밤(18시)부터 남해동부와 동해남부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,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또한, 모레(26일)와 글피(27일)에 부산과 경남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